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양안 관계

이원봉/임규섭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대만의 국가정체성 | 참고문헌 |
| III. 양안 관계 변화과정 | Abstract |
| IV. 양안 관계에서 국가정체성 | |

Key words(중심용어) : 양안관계(China-Taiwan Relations), 양안정책(China-Taiwan Policy), 대만정치(Taiwan Politics), 중국정치(China Politics),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국 문 요 약

중국-대만 양안 관계는 대만의 양안 정책, 중국의 양안 정책, 미국의 양안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대만의 양안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지향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꾸준히 유지해왔으며, 중국의 양안 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대만의 독립을 견제하면서도 양안 간의 교류를 중시하였다. 또한 미국은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해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양안 간의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고 대만의 마잉주이 정부 등장 이후에는 정치적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대만 사회 내부의 국가정체성을 양안 관계 변화의 주요 변수로 삼아서, 대만의 국가정체성 변화가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 실제로 대만의 국가정체성에 기반을 둔 통일과 독립문제는 정당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슈로써 대만의 양안 정책에 영향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양안 관계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

I. 서 론

양안의 정치적 관계는 쌍방의 대내적 상황변화 및 이와 관련된 대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 중, 중국과 대만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의 지속 여부, 양안의 통일에 대한 지도부와 주민

들의 인식변화, 양안 관계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의 변화 여부는 양안 관계 변화의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문흥호 2000, 236). 사실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형태를 보였던 대만의 대륙정책은 대만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국제정세와 중국의 변화로 그 정책을 전환하였다. 특히 1987년 11월 대륙 친척 방문 허용 이후 대만의 대 중국정책은 과거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비교적 명확한 원칙과 방법을 모색하여 대응하였다. 양안은 국내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요구, 주변 국제정세와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대립 및 갈등 일변도의 관계에서 보다 완화되고 신축성 있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대만으로서 양안 관계의 핵심은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 특히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최강호 2008, 228). 즉 대만의 국가정체성 문제는 양안 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의 국가정체성은 주로 ‘종족’(ethnic, 族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감적 인정(認定)으로 형성된 민족정체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종족이 민족정체성에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종족정체성이 구축한 민족정체성은 국가정체성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林佳龍 2001, 21). 비록 국가정체성과 종족문제가 통일된 필연성은 없지만, 대만에서 이 두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는 대만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 때문이다(張茂桂 1998, 101). 이는 대만의 종족문제는 거의 국가정체성 문제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적당한 종족명칭’, ‘공통된 조상의 신화’,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적 기억’, ‘통속문화와는 다른 하나 이상의 요소’, ‘특유한 고향의 연계’ 및 ‘종족의 모체(population)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의 정감’ 등 6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비슷한 집단일수록 ‘종족’으로 더욱 인정된다(Anthony D. Smith 1991, 21). 이러한 6가지 조건은 같은 종족들 간에 ‘우리’라는 느낌을 형성하며 마침내 종족을 응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종족정체성은 ‘원생론’(primordialism)과 ‘도구론’(instrumentalism) 두 파로 나누어진다. 이 중 원생론 관점의 종족정체성은 한 사람이 객관적 혈연에 의한 연대 혹은 주관적으로 특정종족에 대해 생성된 정체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몇 십대에 걸쳐 전 세계에 떠돌며 살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중국인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 현실 상황에서 종족정체성은 항상 도구론과 혼합된다. 즉 종족정체성은 항상 각종 이익을 위해 선동되며, 또한 각종 이익의 쟁취 및 선동 하에서 종족정체성은 변천된다(葛永光 1993, 16). 이 때문에 도구론은 원생론의 범위를 뛰어넘어 종족을 구축하는 것을 설명한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중국본토 사람들이 이주해온 지역으로 이주민이 다른 관계로 대만주민은 대략外省인(外省), 내성인(本省, 閩南), 객가(客家)인 및 원주민(原住民) 4대 종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만약 순수하게 원생론의 방식으로 대만민족을 구축하면 각 종족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4대 종족은 도구론의 방법을 이용해서 ‘생명공동체’ 혹은 기타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의 대만민족으로 묶고 나서, 융합, 단결 및 동원 등 방식으로 특정의 정치목적에 이용된다.¹⁾ 대만은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蔣經國)두 총통 시대, 리덩훤이(李登輝) 및 천수이벤

1) 종족의 구축 및 동원은 정치목적과 떼어 수 없는 관계로서, 종족은 강렬한 종족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와 종족집단이 상대적으로 약세에 처해있는 두 가지 상황에게 가장 잘 동원된다(Ted Pobert Gurr & Barbara Harff 2002, 108).

(陳水扁)시대를 걸쳐 현재의 마잉주이(馬英九)정부 시대까지의 각종 정책을 통해서 대만 4대 종족을 하나의 특수한 ‘대만민족’으로 융합하여 중국본토의 ‘중화민족’과는 다른 민족이 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리덩훤이 시기 이후 대만의 종족정체성 문제는 대만 선거 중 유권자들의 태도와 행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정권의 합법성’ 및 ‘투표의 극대화’라는 구조적 제약 아래서 선거에 승리하여 정권을 잡은 정치지도자는 국민의 강렬한 정치적 목적을 함축한 종족정체성에 따라 양안 관계를 규정하였다. 즉 정치지도자들은 대만의 종족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양안 관계 운영방식을 달리했다.

대만의 종족정체성은 ‘통일’(統一)과 ‘독립’(獨立)에 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통일과 독립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양안 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왔다(김원곤 2005, 306). 그러므로 대만사회 내부의 변화 특히 대만 종족정체성 관련 논쟁을 통해서 양안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실상 양안 관계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목표, 의도 및 정책과 미국의 양안 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대만은 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면서 대 중국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였으며, 이는 전체 양안 관계의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시기적으로 양안 관계가 형성된 194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삼았으며, 대만의 종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대만의 국가정체성의 변화가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대만 내부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당(國民黨)과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民進黨) 간의 정권교체를 중심으로 대만의 국가정체성 변화와 그에 따른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II. 대만의 국가정체성

1. 장제스 및 장징궈 시대의 국가정체성 : ‘하나의 중국’ 시기

1)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에서 국가정체성의 변천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대만인들이 주관적 인지 측면에서 ‘중화민국’(中華民國)이라는 국가에 대한 귀속, 기대 및 선택의 정감이 변화되어온 역사과정을 의미한다. 장제스와 장징궈 시대의 국가정체성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 주축이 되었다. 당시 대만의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은 바로 중국본토의 ‘중국공산당’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법통(法統)에 근거하고 있다(石之瑜 1993, 232). 이 때문에 ‘하나의 중국’과 ‘반공복국’(反共復國) 정책의 견지는 국민당 정권의 정당성(legitimacy)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 장제스 및 장징궈 총통은 ‘하나의 중국’정책 하에서 대만 모든 계층의 역량을 통합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항하고 중화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를 운영했다. 더 나아가 중화민족 및 중화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대만인의 국가정체성을 통일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형성된 대만인의 국가정체성 강도는 장제스와 장징궈 두 총통의 정권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국가정체성은 집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Raymond Grew 1986, 32), 장제스와 장징궈 시대에 추진한 ‘특정한’ 국가정체성도 역시 중화민국의 존망(存亡) 및 두 장 총통의 정권유지와 상호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 사실상 1949년 장제스가 이끈 국민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오고 나서, 대만 사람들을 ‘중국화’(中國化)하는 과정에서 정치 및 경제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국민당 정부는 교육, 매체, 언어 및 정부이데올로기 등 수단을 통해서 중국 문화의 주도권을 대만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강요했다(Thomas B. Gold 1994, 60).

2) 국가정체성 확립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만이 광복한 이후 대만인들은 중국본토와는 다른 국가정체성을 줄곧 생성하여 표현하였다. 그 주요 원인의 첫째는 대만은 아주 오래전에 중국본토에서 분리되어 나왔고, 외세(外勢)가 무력으로 대만인에게 강압적 통치를 했다는 ‘집단의 기억’에 있으며, 둘째는 대만인과 국민당간의 마찰은 대만인과 국민당이 초기에 일어난 충돌과 잘못된 상호 인지에 기인하고 있고, 셋째는 대만문화와 대만의식은 중국문화와 중국의식과 다르며, 넷째는 중국본토 사람들은 강압적인 통치방식으로 대만인의 이익을 착취했으며 대만인이 다시 중국인으로 재사회화(re-socialize)되게 강요함으로써 쌍방 간 인식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Alan M. Wachman 1994, 91-92).

두 장 총통시기 대만의 종족 간 관계는 외성인이 정치적 우세를 기반으로 주도하였으며 민남, 객가 및 원주민 종족은 항상 주변화(周邊化)되었다. 당시 이들 3대 종족은 정치 대권을 장악한 외성인 종족에 반드시 의지하여야만 생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조건들은 앞으로 대만의 종족들 간에 마찰 및 경쟁이 쉽게 도발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상 초기 대만의 종족의식은 청 왕조(淸朝)시기에 한족이민자가 대만에 이주해오면서 ‘대만의식’을 형성하였다. 그 당시는 단지 ‘향토의식’으로써 ‘중국의식’과는 대항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0년 후반에 일어난 ‘二二八사건’이 대만주민을 자극하며 중국 정체성에 도전하는 동인(動因)이 되면서, 종족의식은 앞으로 대만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二二八사건 이후 국민당 정부는 대만 내부에서 종족정체성의 분열을 용인하지 않았다. 특히 두 장 총통은 재임기간에 대만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을 구분하지 않고 대하면서 모든 종족이 국민당의 교화(教化)하에서 ‘중국인’으로 재탄생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므로 1949년 대만에 옮겨온 국민정부는 정치력을 동원하여 일본어를 폐지하고 강제적 수단으로 대만인의 언어 및 사상을 왜곡(歪曲)하였다. 또한, 대만의 지리, 역사, 언어, 풍습 등 특수성을 부정하고 대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민족관과 문화관도 강압적으로 버리게 했으며, 통치자의 언어, 문자 및 사상을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게 하였다(彭瑞金. 1993. 66).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정체성 관념을 구축하고 민족정신을 조장(助長)하여 ‘중국인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두 장 총통시기에 국민정부는 공동의 종족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언어사용’정책 하에서 ‘국어’(國語, 만다린, 북경어 중심의 보통화)를 언어소통의 도구로 삼았다. 대만주민은 국어와 ‘국문’(國文: 중국문학) 교육을 통해서 중화문화를 받아들여 섭취하였고, 그 속에서 중화민족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대만은 교육 및 사회 전체적으로 종족의 융합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葛永光 1993, 170-171).

이 시기 국민당 정부는 대만주민의 종족정체성을 ‘중국어인 정체성’으로 전환하여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의 절대 권력을 운용하여 대만인이 ‘대만민족정체성’을 발전하려는 시도들을 억압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기는 하였지만, 대만원주민문화와 같은 대만의 다원화된 문화 및 사회의 지속적인 보존 탓에 대만의 현대화의 진전에도 종족의식 및 종족정체성은 약화하거나 소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경쟁의 필요에 의해서 종족의식은 점차 도구화되고 정치화되었으며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화 및 종족의식의 변천 과정 속에서 대만의식은 중국정체성과 국가적 통합에 가장 큰 장애물로 변화하였다(葛永光 1993, 176).

2. 리덩훤이 시기

1) 민주화와 토착화

리덩훤이 시대는 ‘민주화’와 ‘토착화’를 시정(施政)의 큰 축으로 삼았으며 이 두 운동의 영향 아래에서 대만의 국가정체성은 큰 변화를 겪었다. 다시 말해 리덩훤이 시기 이전 대만인은 자신을 ‘중국어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만에서 민주화 및 토착화 추진과 그에 따른 대만 정체성의 심화 때문에 대다수 대만인은 의식적으로 본성인 혹은 외성인 등 종족의 범위를 초월하여 ‘신 대만인’(新臺灣人)이 되려고 하였다(李登輝, 中嶋嶺雄 2000, 214). 사실상 1949년 이후 대만의 국민당은 대만인에게 정치 및 문화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강권정치의 압박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중국민족성과 중국통일의 종족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요가 핵심이었다. 그러므로 대만인의 독립 및 민주화 추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Chris Harman 2001, 22).

대만에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본격적으로 중시 받게 된 것은 대만의 ‘민주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施正鋒 2001b, 146), 더 나아가 리덩훤이 시기의 특징인 대만의 민주화는 또한 ‘토착화’와 맞물려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대만인은 오랫동안 외래정권에 의해 통치당해 왔지만, 민주화 및 토착화를 추진하면서 대만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대만의 정체성 문제는 대만정치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의제(議題)가 되기 시작했다(李登輝, 中嶋嶺雄 2000, 35-36). 즉 대만의 정치적 상황은 민주화를 걸쳐서 토착화가 진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토착화 과정을 통해서 대만인은 ‘대만 현지’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대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리덩훤이 시기의 정치지도자들은 대만의 주인의식(主人意識)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렇게 형성한 정체성에 근거하여 전임 두 장 총통과는 완전히 다른 양안 관계를 보였다.

사실상 대만의 토착화 운동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 ‘문화적 독립’ 운동이 출현하기 이전의 토착화는 모두 ‘중화문화’를 대만 본국의 문화 혹은 대만 고유의 문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장징궈 시대 추진했던 토착화 운동은 대만을 주체로 하여

질적 변화를 모색하였기 때문에 토착화 혹은 ‘대만화’(臺灣化, Taiwanization)라고 부르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대만화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토착화’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장징궈 총통은 대만인과 중국인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인식하에서 토착화를 진행하였으므로, 그가 추진한 정책은 대만화로서 리덩훤이의 ‘탈중국화’(去中國化, de-sinolization)를 본질로 하는 토착화와는 다르다고 본다(石之瑜 2003. 聯合報). 리덩훤이는 탈중국화를 본질로 하여 장징궈 시대의 전통 중국의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대만국가정체성을 추진하여 정치적 변혁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현지’를 강조함으로써 ‘자신’과 ‘타자’(他者)간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Anthony D. Smith 1991, 127).

2) 국가정체성의 변화

1980년대 대만은 수많은 사회운동이 발생했으며 전통적으로 국민당에 대한 복종과 정부의 통제 및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운동의 담론은 ‘국가자치론’(國家自治論)에 대한 요구이었다. 즉 대만사람이 대만을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을 중국 일부분으로 보는 소수의 외성인 통치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만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대만사람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진행되었다(David Potter 2000, 278). 특히 1986년 민주 진보당(民主進步黨)이 성립되면서 그 이후 대만의 반대운동은 민주화에서 ‘토착화’로 서서히 전환하기도 했다(徐火炎 1996, 166). 당시 국민당의 토착화 정책은 민진당의 성립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중리사건’(中壢事件)부터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에 이르기까지 국민당의 강력한 진압으로 말미암아 온화했던 사회운동이 서서히 급진적인 토착화운동으로 변질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민진당이 주장하는 토착화운동은 국민당이 제정한 제도 및 법률에 대한 반대 및 부정을 골간으로 하였다. 이때부터 국민당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국가정체성도 강렬하게 반대하였다.

대만은 과거 몇 십 년간 정부가 추진한 ‘동화’(同化)정책 하에서 ‘중국문화’를 주체로 한 문화정책, 매체와 교육시스템을 통해 전파한 ‘대중국사상’(大中國思想) 및 각 종족 간의 상호 통혼(通婚), 교류 등으로 대만이 하나로 뭉쳤다. 국가정체성도 과거에는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했고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엄령 해제, 민주화 및 토착화 운동의 확산으로 종족정체성 문제는 자극받고 강조되기 시작하였다(葛永光 1993, 125). 특히 리덩훤이 시기에 들어와 국민당은 토착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류세력들은 전통중화민족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포기하였다. 더는 중화민족의 후손이 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향을 전환하여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종족정체성에 대한 권위적 해석권을 놓고 쟁탈전을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의 주류민심(民心)이 ‘전통중화민족 정체성’에서 ‘대만민족’ 혹은 ‘대만종족’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의미하며, 동시에 종족 간의 구분 혹은 차이를 선동하여 국가정체성의 논쟁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리덩훤이 시기 대만의 종족정체성은 뚜렷한 ‘탈중국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리덩훤이 집권 초기인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대만의 종족정체성은 커다란 전환을 하였다.

<표1> 대만인 종족정체성(1991년 1993년 비교)

종족정체성	1991	1993
대만인이다.	13.5%	28.55%
대만인이면서도 중국인이다.	73.2%	36.02%
중국인이다.	12.9%	33.42
총인원	1557	1272

참고 : 游盈隆 1996, 51.

이러한 전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만인이면서도 중국인이다.” 항목이 급속히 축소된 것이다. 또한 “대만인이다.”와 “중국인이다.” 항목도 1993년에 약간씩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만인이다.” 항목이 “중국인이다.”의 정체성 항목을 약간 초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의 종족정체성이 두 장 총통 시대에 유일했던 “중국인이다.”와 “대만인이면서도 중국인이다.”라는 정체성에서 “대만인이다.”의 정체성으로 전환하여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만 국가정체성 전환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리덩훤이의 토착화정책이 대만 현지의 향토교육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건설 등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정체성 이념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盧建榮 1999, 261-270)

대만에서 토착화의 정치적 호소는 정치적 대항의 이데올로기 기초가 된 대만민족주의를 내포하고 있었다(王甫昌 1998, 135). 당시 종족 간의 구분 혹은 차이를 자극하여 국가정체성을 쟁론화 하고 종족을 기초로 한 정치적 행태는 종족정치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혹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적당히 조절하였다고 본다. 리덩훤이가 이끈 정치 엘리트들은 대만의 정치민주화와 다원화 과정을 겪으면서 다수의 선거 표를 최대한 획득하여 집권하기 위해서 서서히 ‘민심’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치엘리트들은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대만 민중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주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기도 했다.

3. 천수이볜 시기

1) 탈중국화

대만은 민주화를 시작으로 해서 리덩훤이 후기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국가정체성은 대만독립성향에 상당히 치우쳐졌다. 특히 2000년 천수이볜의 총통당선 이후 대만의 민주화는 사실상 공고히 되었으며 대만의 국가정체성도 더욱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양안 관계의 발전은 리덩훤이 시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만 민주화 이전인 장제스와 장징궈 두 총통 시대에 대만의 국가정체성 기초를 만들었으나, 리덩훤이시대의 민주화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던 천수이볜시대에는 대만독립을 향하여 급속히 전환하였다. 대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가정체성의 전환에 기반을 두고 양안 관계를 구축하여 나갔다. 즉 국민당 정

권을 종식하고 집권한 민진당은 대만문제 및 양안 관계에 대한 기본인식과 공식적 표현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민진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대만의 국가정립 방향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법상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탈중국화’는 대만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탈중국화 사유는 국가정체성에서 ‘전통 중국’을 제거하고 대만의 문화, 종족과 제도 등을 정체성의 주체로 삼으려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런 사유방식을 이용해서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추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천수이벤 시대에 대만의 ‘통일과 독립 의식’(統獨意識)이 첨예하게 대립한 환경 속에서 대만이 추진한 ‘토착화’운동은 더욱 탈중국화를 의미한다. 대만이 ‘하나의 중국’ 사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토착화는 사실상 중국문화의 복고(復古)운동이라고 판단한 민진당 정부는 토착화 정책에서 교육의 탈중국화를 이루는 동시에 ‘대만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戴正德, “教育本土化與社會發展的關係”). 결과적으로 천수이벤시기에 대만의 정치 혹은 사회적 분위기는 “토착화는 바로 탈중국화이다.”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2) 대만주체의 국가정체성

천수이벤시기부터 대만은 중국본토와 어떠한 관계나 연고도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양안문제를 사유(思惟)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천수이벤 집권 2기에 들어와 ‘대만’이라는 명칭 사용과 대만역사와 중국역사를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만의 주체성을 더욱 강조하였다(신상진 2006, 53-54). 즉 천수이벤의 민진당 정부는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만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 작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만의 정체성 강화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자신들을 중국과 대만 혹은 중국인과 대만인의 구도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저변에는 뼈아픈 ‘과거에 대한 기억’이 깔려있다. 이는 대만이 실질적으로 중국본토와 무관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역사적 실체를 재확인하고 본토에 대한 피해 의식을 극복함으로써 대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문홍호 2007a, 190-192).

‘대만 주체성’의 강화는 “대만의 향토(鄉土)를 사랑하자”라는 의식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대만인들이 대만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여 대만의 국가정체성이 과거 전통의 중국문화정체성에서 벗어나 “대만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국가정체성의 전환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의 종족정체성 혹은 국가정체성은 ‘혈통’을 비교적 강조하는데, 특히 민남인(閩南人)을 종족정체성의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배타적 종족주의 의식은 1993년 국가고시에서 민남인 출신이 아닌 수험생은 낙방 되어 도태되기도 했다. 이는 ‘토착화 이데올로기’가 향토를 사랑하자는 원래의 순박한 정감을 초월하여 국가권력 및 고시제도를 빌미로 삼아서 대만 사람들에게 혈통적 정감 및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사례이다(宋國誠, “河洛霸權與本土沙文主義”). 결론적으로 이 시기 대만의 종족정체성은 ‘중국인’을 정체성의 유일한 표준으로 더는 삼을 수 없지만, 그중 반드시 4대 종족인 민남(閩南), 외성(外省), 객가(客家), 원주민(原住民)이 융합된 ‘신대만인’(新臺灣人)이 대부분의 대만인에게 정체성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실제 대만의 사회관계에서는 반드시 민남인이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야만 급진세력들이 인정하였다.

이 시기 대만의 국가정체성은 대만민족의 정체성 구축으로 점차 전환하는 사유방식에 근거하

여, 1990년대의 반대세력을 형성한 ‘충돌 대립성’의 대만민족주의가 ‘건설적인’ 국가민족주의로 서서히 전환하면서, 대만민족주의는 과거 통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존재했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성격전환 및 발전은 2000년 3월 총통선거 이후부터 더욱 분명해졌다(Chris Harman 2001, 2).

천수이볜이 집권하고 나서 그의 이데올로기 견지로 양안 관계는 더욱 후퇴하였으며, 그 때문에 양안 간의 소원(疏遠)한 환경과 분위기는 오히려 대만민족이 탄생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다시 말해 천수이볜을 비롯한 천수이볜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이 대만민족의 구축을 크게 제창하며 중국본토와 소원한 대만민족을 견지함으로써 종족정체성이 전환하는 데 유리한 기초를 만들었다. 즉 대만민족의 구축단계에서 양안 간의 소원한 분위기는 종족정체성 전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만민족’의 정체성 구축과 양안 관계의 소원한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4. 마잉주이 시기

1) 경제교류 강화

마잉주이 시대의 개막은 경제회생을 갈구하는 대만인들의 절실한 선택으로서, 대만 경제발전의 핵심인 대 중국 관계를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의미한다(강준영 2008, 1). 2008년 5월 20일 마잉주이는 12대 총통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해 11월 3일부터 4박5일간 중국해협안안관계협회(海協會) 천윈린(陳雲林) 회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륙과 대만간의 해상 직항로 개설 등에 합의하였으며, 천윈린 회장과 대만의 해기회(海基會) 장빙쿤(江丙昆) 이사장 간의 양안 회담을 개최하여 양안 관계를 ‘92공식(共識)’ 정신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진행한다는 정책을 실현하는 등 양안 관계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잉주이 대륙정책의 배경에는 ‘양안특별관계론’(兩岸特別關係論) 또는 ‘내외유별’(內外有別)이라는 이념이 깔려있다. 마잉주이는 양안 관계를 언급할 때 대만 정체성의 명확한 위상 정립을 회피하였으며 ‘내외유별’의 선포방식을 채택하였다. 마충통은 양안이 ‘일종의 특별한 관계’라고 제시하였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부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양안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심지어는 ‘일국양제’ 혹은 ‘두 개의 정치 실체’라는 개념 ‘내용도 회피하였다. ‘양안특별관계론’에서 내외유별이란 대내적으로 ‘주권독립’ 및 ‘양안대등’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 중국 ‘위상정립’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회피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잉주이의 내외유별은 대내에는 주권독립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주권 언급을 회피하며 대만의 국가 위상 정립을 회피하였다(최강호 2008, 238-239).

마잉주이는 ‘양안특별관계론’을 통해서 중국정부와 주권을 놓고 도전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였으나, 대외적으로 선언할 때에는 ‘주권 쟁의’의 양안특별관계론을 철저하게 내버려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대만 국민의 ‘심리적 안정 추구’와 ‘경제 부흥’이라는 문제가 있다. 마잉주이의 양안 관계정책의 최우선 중점 사안은 대만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최강호 2008, 239). 그러므로 마잉주이 정부는 대만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양안 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이 최선으로 알고 추진하였다.

2) 국가정체성

마잉주이 국민당 정부는 정치적 교류의 한계를 명백히 이해하고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증속성의 심화를 양안 관계 현상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확신하고 있다(강준영 2008, 4). 그러나 마잉주이가 내건 양안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양안의 접근에 따른 대만 내 반대세력의 결집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최강호 2008, 242). 즉 대만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부정적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대만의 ‘주권 의식’은 오래전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마잉주이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마잉주이도 자신은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신 대만인 의식’을 강조하였다. 대만은 민주선거를 통해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험은 대만인이 민심의 표출이나 민족주의 정서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대만 주체의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향후 대중국관계에 있어서 경제관계의 확대와는 관계없이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별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강준영 2008, 12). 마잉주이 정부 이 양안 관계는 급속하게 호전되면서 ‘三通’을 포함하여 실무적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륙정책에 대한 인식과 기본 노선에 대한 대만 내의 평가는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즉 마잉주이 시대에도 대만의식 및 대만주체 등 대만의 정체성은 대만문제 및 양안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²⁾

Ⅲ. 양안 관계 변화과정

1. 양안 관계의 제 요소

양안 관계는 기본적으로 1949년 10월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양안 관계를 과거와 현재, 정치와 경제 관계, 이념적인 관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로 보기도 한다(문흥호 2007b, 18).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은 1980년대 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다소 완화되고 교류가 시작되었다. 양안 간 정치·안보적 갈등 관계 속에 경제관계 및 인적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기능적 통합’을 추진해온 양안 관계는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교류의 급속한 증진은 양안 간 갈등관계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

2) 이러한 비판의 이유는 대만은 민주화 이래 민중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발전해왔는데, 마잉주이는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오히려 ‘양안특별관계론’을 제시하여 ‘국가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과거 20년간의 노력을 부정했다고 본다(최강호 2008, 239).

다(오승열 2003, 531). 이러한 양안 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들로 대만의 양안 정책, 중국의 양안 정책, 미국의 양안 정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양안 정책

1949년 대만으로 천도한 국민당정부의 국가정체성은 ‘하나의 중국’이 주축이 되었다. 당시 대만의 중화민국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은 ‘반공복국’(反共復國)정책의 견지를 통한 중국본토의 중국 공산당정권 전복이었다. 이러한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통일정책은 양안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초까지 대만의 국민당정부는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감 때문에 중국의 교류 제의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대만 내 국민당정부의 대륙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의 영향을 받아 민간 차원에서의 양안 간 교류협력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정부는 기존 정책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비공식적 인적 교류, 경제교류 등 중국과의 ‘접촉’ ‘담판’ ‘타협’을 금지하는 소위 ‘삼불정책’(三不政策) 이탈현상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문흥호 2007b, 21-22).

1991년 대만 행정원은 국가통일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은 양안간의 기본관계와 양안의 정치적 지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일국양구론’(一國兩區論)을 제시하였다.³⁾ 국가통일강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1) 중국의 대만 정치실체 인정, 2) 교류 접촉, 3) 통일협상 등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한중수, 주유진 2005, 16). 통일강령은 중국과의 교류를 공식적으로 표명만 정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안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 정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의 양안 관계는 1995년 이후 리덩훤이와 천수이벤의 강력한 대만독립정책 추진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리덩훤이의 대만의 탈중국화와 토착화정책을 통한 새로운 대만의 국가정체성 확립정책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양안 관계를 악화시켰다. 리덩훤이 후임자로 등장한 천수이벤은 국가정체성에서 ‘전통 중국’을 제거하고 ‘대만화’를 추진하여 대만의 독립을 강력히 추진하였다.⁴⁾

천수이벤 집권 당시 야당과 여론의 양안 간 교류요구 압력은 물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양안 관계는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7년 이후 천수이벤의 대만 독립정책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만의 야당 지도자들은 중국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만 내의 여론, 그리고 야당의 반대, 미국의 압력 등에 의해 양안간의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는 지속될 수 있었다.

2008년 3월 마잉주이 총통취임 이후 양안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하였다. 2008년 5월

3) ‘일국양구론’은 한편으로 ‘강8조’(江八點)에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또 하나의 대만론’을 희석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분리 현실의 상호존중을 통하여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외교안보연구원 1993, 5-6). 달리 표현하면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대만에 대한 사실상의 주권행사를 인정받겠다는 이중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4)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은 2006년 신년사를 통해 “대만인은 중국의 노예가 결코 아니며, 양안 관계는 주권·민주·평화·대동의 4대 원칙에 부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문흥호 2007b, 20).

마잉주이정부는 중국과 통일도, 대만의 독립도, 양안 간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3불(三不)' 원칙 아래 중국인의 직항, 관광, 환전을 허용하는 신 '3통(三通) 실현이라는 경제우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에 강조되었던 대만독립보다는 양안 관계의 변화와 번영, 협력과 교류를 우선 시하는 정책기조로 전환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잉주이정부는 집권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 및 '92공식(共識)에 대한 승인을 통해 침체된 대만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륙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신중호 2008, 14). 이와 같은 마잉주이정부의 현실주의적인 양안 정책은 양안 관계에 새로운 활력소로 등장하였고 이는 양안 간 교류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2) 중국의 양안 정책

1949년 중국정부 수립 이후 중국 지도자들에 있어 대만문제는 국가와 민족 차원의 과제로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왔다. 즉,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게 있어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성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인 것이며 이는 지도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적 기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중국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포함한 양안의 주요 정치적 현안을 '대만문제'로 인식해 왔다. 중국은 양안의 통합을 두 정치 실체 간의 통일이러는 차원보다는 대만을 복속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일을 지향해 왔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대만문제를 중국의 고유한 내정문제로 규정해 왔다. 중국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은 이후 대만을 독립적인 정치 실체로 표현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 왔다(江澤民. 1995: 문흥호 2007b, 19).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9년 이후에는 '하나의 중국'원칙 하에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기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중국의 통일방식은 '평화통일' 방식이지만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중국의 통일정책은 1979년에 발표한 '대만동포에게 고향', 1983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공표한 '등6조', 1993년에 발간한 '통일백서' 등에 이어 1995년에 장쩌민(江澤民)이 발표한 '강8조(江八點)를 통해 체계화 되었다(한중수·주유진 2005, 11).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상 과제로 추진하면서 대만정책을 포함한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이념적인 요인보다는 합리적 선택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이른바 '삼통사류(三通四類)'정책을 제안하는 등 대만과의 교류에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三通'은 통항(通航), 통우(通郵), 통상(通商)을 의미하며 '사류'는 경제·문화·학술·과학기술·체육 방면의 교류를 의미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주장한 전략적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조준현 2004, 194). ① 밀접한 경제교류와 민간교류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서를 확대시킴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전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당국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만내의 독립성향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②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제적 예측성을 가중시켜 양안문제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양안문제를 순수한 내정문제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통일정책은 장쩌민체제에 들어와 '江八點'으로 집약 대표되어 왔다.5) 장쩌민의 통일정책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포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마오쩌

둥(毛澤東) 시기의 통일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하나의 중국’원칙 하에 양안간의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덩샤오핑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쩌민 이후 양안간 경제교류는 급속히 증대되었다.

2002년 등장한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체제는 집권 초기부터 대외적으로 경제발전 환경조성을 위한 평화적 국제관계를 지향하면서도 대내 민족주의적 열망을 정치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영토와 주권 및 민족주의와 연관된 주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한 대외정책을 모색하였다. 2005년 3월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만 독립 시 무력사용을 정당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여주었다(김홍규 2005, 5-6). 반국가분열법으로 양안 간 정치적 갈등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중국 후진타오체제는 중국의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양안 관계와 교류를 모색해 왔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대만의 독립성향을 견제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한 가운데 경제교류를 발전시켜 왔다.

2008년 12월 31일 후진타오의 대만 관련 연설은 ‘후주석의 6가지 제안’(胡六點)으로 구체화되었다. 胡六點의 원제는 “손잡고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을 추진하고 한마음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이었다. 후진타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전히 강조했지만, 대만의 ‘국제공간’ 확보정책에 대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으며, ‘특수한 조건하에서’ 정치관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적당한 시기에’ 신뢰구축조치(CBMs)를 위한 군사대화도 제의하였다(최명해 2009, 5). 이는 과거 장쩌민의 8가지 제안에 비해 현 단계의 우선적 목표로 ‘통일’보다는 양안 간의 ‘평화발전’이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정책의 변화는 양안 간 경제·사회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하였다.

3) 미국의 양안 정책

미국의 양안 정책은 양안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중국 건국 초 미국의 양안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정책이었다. 1979년 미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방위조약을 폐기한 후에도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의 방위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해 왔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은 대만의 독립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중미 간 관계개선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대만독립 불지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반대 등을 대만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으며 대만해협의 현상유지와 안정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채택해 왔다(신상진 2007, 58-61). 미국의 양안 정책은 대만을 지원하여 양안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양안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 왔다.

5) 1995년 1월 발표된 장쩌민의 평화통일에 관한 8항의 정책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② 대만과 외국과의 관계는 민간왕래에 한한다. ③ 양안 간 조속한 접촉을 통해 적대의식 해소 ④ 대만독립이나 외세 개입 시 무력사용 불포기 ⑤ 양안 간 경제무역 확대발전과 三通 실현 ⑥ 중화문화의 발양과 국가통일 실현 ⑦ 통일을 촉진키 위한 대만국민들의 적극 참여 ⑧ 언제 어디서나 양안 지도자 간 회담 희망 등이다(최관장 2003, 8).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식의 통일 논리와 대만식의 독립 논리를 모두 반대하면서 형식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만의 자주·독립적 존재를 인정하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 왔다(문흥호 2006, 15). 미국은 대만문제를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하반기 이후 미국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⁶⁾ 미국으로서는 양안 관계의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어느 일방의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통일 시도를 방지하고 대만의 독립 시도를 억제해 왔다. 미국은 천수이볜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분명히 밝혔으며, 독립 여부를 묻는 평화적 국민투표 실시 주장 및 대만 명의 유엔가입 시도 등 대만의 독립 정향이 분명히 나타나자 2007년 대만문제를 미·일 공동 전략목표에서 삭제하였다(최명해 2009, 7). 이는 대만의 독립정책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양안 관계의 악화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대만의 마잉주이 등장 이후 양안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은 마잉주이를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칭하며 그의 양안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대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은 민감한 주권문제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대만의 ‘국제적 활동 공간’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잉주이 등장 이후에도 미국은 어느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중국과 대만 모두에 균형된 지지의사를 줄곧 표명해 왔다(최명해 2009, 9-10).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양안 정책은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2. 양안 관계의 변화

1) 갈등기(1949~1978)

1949년 건국 이래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대륙정부와 장제스 치하의 대만 국민정부는 각기 이념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마오쩌둥사상과 이를 적대시 하는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건국 초기 중국의 대만정책은 몇 차례 ‘평화통일’에 대한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교류와 협력보다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무력해방정책을 추구해 왔다.

한편 대만은 중국공산당이 정권탈취를 기도하면서 중국의 재분열이 시작되었고 항일전쟁 이후 공산당이 무장반란을 통해 본토를 석권하면서 대만이 천도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륙을 공격하여 중국을 통일한다.”(反攻大陸 統一中國)는 정책은 대만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며 ‘적대적 공존’에 기초한 정권연장의 장치로 기능해 왔다(이희옥 1998, 191). 장제스·장징궈 부자로 이어진 대만의 국민당정부 하에서는 통일방식,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 중

6) 미국의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2004년 12월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국의 대대만 무력공격을 저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바 있다(신상진 2007, 62; 郭震遠 2005, 85-88)

국본토를 수복하기 위한 신념하에 하나의 중국,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과 대만 모두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을 뿐 양안의 통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문흥호 2007b, 13-14). 이와 같은 극단적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중국의 대만해방과 대만의 본토수복이라는 국가목표 하에 중국과 대만 간 적대적 대결상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당시 양안 관계는 적대적 갈등관계로 특징 지워졌고 양안 간의 교류는 부재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교류추진기(1979-1994)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국가전략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양안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 시작하였다. 중국지도부는 평화통일 노선을 표명하면서 양안간의 교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은 그동안 고수해 오던 대만무력 해방정책을 ‘평화통일’노선으로 전환하였다(최관장 2003, 1). 대만과 중국의 경제교류와 대만기업의 중국진출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 중국정부가 대만 동포에 대한 우대조치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1983년에는 대만 동포에게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3개항의 우대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대외개방의 전략으로 동남부 연해지역인 광둥성, 선전, 주하이, 산도우, 푸젠성의 샤먼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해외화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이었다(조명철 2007, 46).

중국의 교류 제의에 대만정부로 하여금 양안교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당시 대만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⁷⁾ 즉 대만은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교류 제의에 대만정부는 1985년 ‘대륙교역삼원칙’(大陸交易三原則)을 제정하여 중국과의 간접무역을 인정하였다.⁸⁾ 대만의 조치에 대해 중국도 대만 상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양안 간 경제교류가 추진되는 가운데 1987년 11월 대만정부는 정식으로 대만국민들의 대륙친척방문(探親)을 허용하였다(人民日報 1987, 10.15). 양안 간의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대만정부가 중국산 원료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면서부터이다.

7) 1980년대 후반 대만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따라서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을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987년 대만의 무역흑자 증가폭이 커지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폭등하고 대만화폐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절상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게 되었는데, 민간기업들은 동남아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투자비용이 싼 중국대륙으로의 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양안간의 교류를 크게 증대시킨 것은 이러한 대만의 민간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였다(조준현 2004, 195-196). 여기에 중국 본토와의 경제교류는 중요한 조정기반이 될 수 있었다.

8) 삼원칙은 ① 중국과의 직접교류 금지, ② 기업인의 중국 관리와의 접촉 금지, ③ 간접무역에 대한정부의 불간섭 등이다. 이 시기 양안 간 교류는 직접교류보다 주로 홍콩을 매개로 한 간접교역과 투자의 형태로 전개되었다(조준현 2004, 195).

1988년 1월 리덩훤이체제 출범을 계기로 대만의 대륙정책은 급속히 변했고 양안간의 교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개최된 대만 국민당 13기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3불정책(불타협, 불담판, 불접촉)”을 견지하면서도 양안간의 민간교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이희옥 1998, 191). 대만기업의 중국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8년 7월 중국정부는 ‘국무원의 대만동포투자를 권장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조명철 2007, 46). 이를 계기로 양안 간의 투자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양안 간의 경제교류는 교역부문에서 1979년 7천 780만 달러 정도의 소규모로 시작되었으나 10년 뒤인 1988년에는 27억 2천만 달러로 35배 증가하였다(Beijing Review 1986, 3, 17). 1980년대 양안 간 정치관계의 단절 가운데에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에 의해 양안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요구가 계속되자 대만정부는 1991년 2월 기존의 삼원칙을 수정한 ‘양안 경제무역교류촉진오원칙’을 제시하여 ① 쌍방의 직접무역과 직접투자 ② 상호혜택과 이익 ③ 교류형식의 다양화 ④ 장기적 안정성 ⑤ 의리와 약속엄수 등을 주장하였다. 이는 대중국 교류제한을 완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조준현 2004, 196).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협상기구 설립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1년 반관반민의 협상기구인 중국해협양안 관계협회(약칭 해협회)와 대만해협양안교류기금회(약칭 해기회)가 각각 설치되어 실질적인 양안 간 대화를 추진해 왔다. 1992년 11월 해협회와 해기회는 “양안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라는 원칙에 상호 동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가 구두(口頭)로 한다.”는 소위 ‘92공식’에 합의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신종호 2008, 13). 중국과 대만과의 경제관계는 1995년 양안 간 갈등이 재개되기 전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3) 제2의 갈등기(1995~2007)

이 시기 양안 관계는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양안 정책의 변화에 의해 대만정부의 독립정책이 견제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치, 안보적 갈등 관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안 간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1995년 대만 총통선거를 계기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리덩훤이는 대만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대만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국내문제이고 언제든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력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서진영 2005, 15). 1995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만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⁹⁾ 1996년 3월 당시 리덩훤이 총통이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만의 자

9) 1995년 8월에는 300km 사정거리의 C-801, C-802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Julian Baum 1995, 17). 10월에는 황해훈련, 복건성 동산도 훈련, 절강성 훈련 등이 있었다. 당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치적 목표를 두고 있었다. ① 대만의 국제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저지한다. ② 미국의 중국견제정책 포기를 유도한다. ③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힘을 과시한다.

주독립성을 고취하면서 ‘하나의 중국정책’에 도전을 하여 다시 중국을 자극하였다. 당시 미국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덩훤이 총통을 개인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비자를 발급하자 중국은 1995년에 이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발사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단행하였다. 1999년 리덩훤이가 양안 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주장하며 ‘양국론’(兩國論)을 제기하면서 양안 간 긴장이 또다시 고조된 바 있다(신중호 2008, 13).

양안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97년 7월 중국은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남아프리카 등 13개국의 홍콩주재 영사관 등 외교기구를 폐쇄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대만의 단교를 종용하는 대만고립정책이었다(중앙일보 1996, 8. 19).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대만의 독립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대만압박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급속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3월 대만의 민진당 천수이볜 정권 출범 이후 대만독립 추구 경향이 강화되면서 양안 관계는 본격적인 갈등기로 들어선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대만의 독립이나 이탈을 경고하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전쟁불사의 협박을 하였다(서진영 2005, 15). 천수이볜은 이후 지속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둘러싼 대립으로 전환되었다(문홍호 2007b, 13). 2002년 8월 천수이볜 민진당정부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한 나라씩 존재한다”는 소위 ‘일변일국론’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을 또 다시 자극하여 양안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신중호 2008, 13).

2006년 2월 천수이볜 대만총통이 국가안전회의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의 근거가 되는 ‘국가통일강령’의 운용 중단을 선언하여 중국을 다시 자극하였다. ‘국가통일강령’은 리덩훤이 집권 초기인 1991년 선포된 것으로 양안의 통일 목표와 원칙 및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양안 관계개선에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신중호 2008, 14). 이와 같이 천수이볜 집권 당시 대만의 독립정책과 미국의 대만지원정책은 양안 간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양안 간 교류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대만 내 여론과 야당의 요구에 의해 경제교류는 지속되었다.

경제교류

1997년 리덩훤이의 ‘신중하고 절제된’ 양안 정책이 발표되자 대만자본가들은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대만의 자본가들은 ‘3통’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일반 국민들도 양안교류를 통한 관계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들이었다. 이후 여론의 압력에 의해 대만의 정계는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과 ‘독립’에 대한 동시적 후퇴에 기반한 현상유지론으로 점차 수렴되기 시작하였다(이희옥 1998, 200-202). 이러한 영향에 의해 리덩훤이 총통 등장 이후 악화되었던 양안 간 정치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안 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1997년 2월 대만정부는 중국인의 대만 관광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본토에 불법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만기업들은 본토와의 직항로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1997년 2월 대만정부가 본토로부터 출발한 선박에 대해 홍콩 경유의 조건으로 대만해협 횡단을 허용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중국 선박이 카오슝(高雄)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1949년 이래로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직항로를 48년 만에 재개하였다(조준현 2004, 197).

리덩웨이체제 집권 기간이었던 1991년에서 2000년까지 양안 간 무역은 86억 1천9백만불에서 312억 5천 2백만불로 증가하였다. 무역에 있어서 2003년부터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김홍규 2005, 12). 2007년 대만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22억 달러였는데, 동년 대만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무려 7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흑자가 77억 달러(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151억 달러)로 더욱 증가하였다(최명해 2009, 16). 양안 간 경제 교류 이후 대만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대만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되었지만 대만경제의 중국 내 영향력도 급증하였다. 2006년 중국 내 상위 20대 외자계 수출기업 중 10개사가 대만기업이며, 그 비중은 61%에 달하였다(최명해 2009, 14).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다음 표와 같이 증대되어 왔다.

<표2> 대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단위: %)

	1995	1999	2002	2005
수입의존도	4.76	5.98	8.61	12.02
수출의존도	23.70	23.48	31.23	37.82
무역의존도	14.58	15.13	20.74	25.18

대만무역통계 : 허홍호 2008, 214.

2000년 대만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해외투자 총액 3백61억 달러 가운데 40%가 중국에 몰려 있었다. 동남아(15%)나 미국(1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었다. 중국내 4만 4천여 개 프로젝트에 모두 2백 40억 달러의 대만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천수이벤은 “대륙인들의 대만 증시 진출도 허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중앙일보 2000, 3. 21). 대만은 제3국 경유의 투자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 제 2위의 대중국 투자국이 되었다. 양안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양안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하였다. 즉 대만의 국내총생산 성장, 수출증대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국의 자본형성에 대한 대만기업의 공헌이 높았다. ② 기술이전 효과를 통해 중국의 산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이 높았다. ③ 중국 노동력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조명철 2007, 50).

양안 간 갈등 완화 모색

후진타오체제 이후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의 천수이벤 총통이 중화민국의 헌법 개정과 국호 변경, 그리고 대만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응은 과거와 달리 신중하였다. 과거와 같이 대만을 위협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양안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서진영 2005, 15). 중국이 이처럼 점진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 무력동원 방식이 대만 독립과의 정치적 입지만 살려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의 반대 원칙을 확인했기 때문에 양안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면 결국 대만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양안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도 독립일변도의 강경한 통일정책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천수이볜정부 출범 이후인 2001년 1월 본토의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진먼·마주 2개 섬과 본토간의 직항과 교역, 우편교환 등을 허용하는 ‘소삼통’정책을 발표하여 양안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조준현 2004, 197). 2005년 1월 29일 중국과 대만 간 56년 만에 직항이 이루어져 통해·통상·통신을 금지하는 ‘3불통’(三不通)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던 직접통행금지마저 깨지는 성과를 거두었다(한중수, 주유진 2005, 21).

대만 야당 지도자들의 대륙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는 양안 정책도 양안 관계의 갈등완화에 기여하였다. 2005년 4월 렌잔(連戰) 국민당 주석은 독자적으로 중국 대륙을 방문하여 후진타오와 회담함으로써 60년 만에 국공회담을 성사시켰다. 렌잔은 자신의 대륙방문이 양안의 평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평화의 여정’임을 부각시켰다. 이 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발표문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채택한 1992년 홍콩합의를 기초로 양안 간 대화를 재개기로 함으로써 대만독립반대 원칙을 재확인했다(조선60년 만에5, 4. 30). 렌잔에 이어 대륙을 방문한 송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 역시 후진타오와 회담을 가지는 등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문홍호 2006, 15). 당시 대만 야당지도자들의 대륙정책, 중국지도부의 유연한 양안 정책은 양안 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교류를 지속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4) 화해협력기(2009~)

2008년 5월 20일 마잉주이 등장 이후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개선으로 1996년 대만해협 위기와 2000년 민진당 천수이볜 집권 및 재선거간을 포함한 총 8년 동안 진행되었던 양안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마잉주이총통 취임 이후 “차이완”(차이나+타이완) 시대의 개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양안 관계는 기대 이상으로 급속히 개선되어 왔다(최명해 2009, 1). 2008년 이후 중국과 대만 간 정상급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2008년 4월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열린 보아오(博鳌)포럼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대만의 샤오완창(蕭萬長) 차기 부총통은 회담을 통해 양안 직항의 신속한 실시, 중국인에 대만관광 개방, 양안 경제무역의 정상화 및 해협회와 해기회를 통한 양안 협상 메커니즘 회복 등에 합의하였다(신중호 2008, 14). 양안 간의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2008년 5월 중국정부는 대

10)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에게 미국은 “독립을 향한 대만의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人民日報 2003, 10. 24).

만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자 대만해협 서안인 푸젠성을 대규모 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해협서안(海峽西岸)경제구’ 건설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6월 대만 국민당 후보(吳伯雄) 주석이 중국대륙을 방문함으로써 ‘제3차 국공합작’으로 불리는 양안 영수회담을 통해 양안 간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논의하였다. 같은 해 6월 13일 천윈린 중국해협회 회장과 장빙쿤 대만해기회 이사장이 양안 간 직항로 개설에 합의하였다.¹¹⁾

2008년 6월(베이징)과 11월(타이베이), 2009년 4월(난징) 3차례의 양안 협상을 통해 대륙인의 대만관광이 실현되고, 평일 전세기 운항, 해운 직항, 전면적 우편교류 실시 등 전면적 ‘3통’ 시대가 개막되었다. 특히 3차 회담에서 사법 공조, 금융협력(공동의 통화결제 시스템의 점진적 수립), 정기 항공 관련 3회담 합의서를 체결하고, 중국자본의 대대만 투자가 처음으로 허용되는 등 통합협력을 향한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국정부는 2008년 12월 중국 내 대만기업에 대한 10대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1,300억 위안(190억 달러)를 대만투자 기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최명해 2009, 1-8).

양안 간의 화해 분위기는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대만의 고립정책을 추진해 왔던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 중국은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가장 침예한 대립을 보인 대만의 ‘국제적 활동공간’에서도 정치적 타협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마잉주이 총통의 ‘외교적 휴전’에 우회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일례로 중국은 파라과이 신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제안에 대해 완곡히 거부하였다. 2008년 8월 대만의 올림픽 참가에도 ‘중국 타이베이’가 아닌 ‘중화 타이베이’의 명의를 허용했으며, 11월 APEC 회의에 참석한 렌잔에게 후진타오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문제’ 협의를 위한 대만대표단의 중국 파견을 제의하기도 하였다(최명해 2009, 2-7). 2008년 이후 양안 관계 개선은 중국 후진타오체제의 유연한 양안 정책과 마잉주이정부의 능동적 주도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호응의 결과이었으며, 동시에 미국이 중국과 대만 어느 일방에도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결과이다.

IV. 양안 관계에서 국가정체성

1. 국가정체성의 양안 관계에 대한 영향

1) 대만 국가정체성의 형성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향후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면서 ‘민족정체성’ 문제는 대만 국내정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민족정체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성인(本省人)과 외성인(外省人)간의 갈등에서 생겼다. 1970년대부터 본성인이 주축이 된 정치적 반대세력

11)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과 대만간의 협상 결과 2008년 7월 4일 중국과 대만의 11개 항공사가 총 18개 노선에 6,300 여명의 승객을 싣고 전세기 직항을 개시하였다(신종호 2008, 13).

은 국민당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하였으며, 그들은 민주화의 목표를 대만 정체성의 부각 및 대만독립과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는 그동안 억눌려온 대만의 정체성을 부각시켜 중화민족주의 대 대만민족주의 간의 갈등을 가져왔다. 즉 대만민족주의자들은 독자적 정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영원한 분리를 주장해왔으며, 중화민족주의자들은 대만을 중국 일부분으로 보면서 독립을 반대하여왔다. 결과적으로 민주화 과정은 두 민족주의 세력들 간의 ‘민족정체성’과 ‘앞으로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갈등을 가져왔다(김범석 2005, 67). 대만의 정체성 민주화 움직임은 대만문제를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라는 구도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중국과 대만은 대만의 정체성 강화와 독립 움직임 때문에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였다(문홍호 2007a, 192).

실제로 민족정체성은 체제이행기에 정치인들의 정치적 동원과 조작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선거경쟁 속에서 민족정체성 문제가 크게 두드러졌다. 민진당은 인종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을 최대한 넓혀나갔다(김범석 2005, 70). 대만사회에서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비율을 훨씬 초월하였다. 똑같은 대만인 중에서 독립된 주권국가를 세우자고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도 중국과 통일을 추구하려는 사람 수를 서서히 초월하였다.¹²⁾

대만정체성과 대만독립에 대한 요구 증가의 요인은 첫째는 민주화가 그동안 억눌렀던 정체성을 분출시켰다. 둘째는 중국의 대만고립정책과 군사위협에 대한 반발로 증가하였으며, 셋째는 선거경쟁에서 후보자들은 사회적 균열을 확대하고 자신에 유리하게 조작하여 지역적 차이를 인종적 또는 민족적 차이로 심화시켰다. 넷째는 대만민족주의자들이 교육정책이나 다른 정부정책을 통해 ‘의도적으로’ 대만의식을 고취했다(김범석 2005, 70; Yu-Shan Wu 2004, 619).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만에서 진행된 ‘토착화’ 혹은 ‘대만화’와 ‘독립화’의 시도는 집권자와 그의 정치적 성향이 변화되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시기에는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부상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만의 처지에서 대만 중심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독립화’를 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김애경 2006, 129).

이렇듯 중국의 적대적 통일정책,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외교적 고립정책은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분리주의를 강화시켜 주었다(김범석 2005, 73). 즉 양안 관계의 발전 혹은 변화도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전략 및 대만 정체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근대시기와 1945년 이후 대만의 ‘역사적 경험’은 현재 대만의 입장과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양안 관계의 역사적 경험은 현재 대만의 인식과 정책 및 대만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김애경 2006, 118).

2) 양안 관계에서 국가정체성의 역할

대만은 장제스와 장징궈의 ‘하나의 중국’이래로 리덩훤이 ‘토착화’, 천수이볜의 대만독립 정책을 걸쳐서 현재 마잉주이 ‘하나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만의 국가정

12)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정치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林佳龍, 2001, 217).

체성도 전환을 거듭해왔으며, 이러한 단계별 국가정체성의 전환에 따라 양안 관계도 변화해왔다. 이는 국가정체성이 양안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각 시기 집권자들이 주·객관적 환경 요인에 따라 대륙에 대한 대만의 국가위상을 통일에서 서서히 독립 측으로 이동하다가 최근 다시 통일을 향해 이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 시기의 다른 입장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대만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국제적 승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대만인들의 정체성과 대만독립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당이 수십 년간 표방해 온 ‘중화민족주의’와 충돌하게 되었다. 즉 대만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 간의 논쟁은 국가안보 문제에 얽히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대만의 민주화는 대만의 민족정체성을 강화시켜 대만독립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그것이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중국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와 대만의 민주화에 따른 독립요구가 양안 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김범석 2005, 59).

민족정체성과 대만의 통일(統一) 및 독립(獨立)에 대한 연관성을 보면, 자신을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지지가 높고 통일에 대한 지지가 낮다. 반면에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가 높고 독립에 대한 지지가 낮다. 즉 민족정체성의 구분과 통일 및 독립에 대한 선호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사실상 민주화 이후 선거경쟁 속에서 통일 대 독립 문제가 정당(政黨)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이러한 구분은 중화민족주의와 대만민족주의의 구분과 연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정당지지’와 대만의 독립 및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범석 2005, 68-69).

대만 내부의 통일과 독립에 관한 쟁의(爭議) 중 종족정체성의 분열은 항상 독립 주장자들이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대만민족’과 ‘중화민족’의 분열과 통합은 ‘하나의 중국’ 혹은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施正鋒 2001a, 174). 이는 대만민족과 중화민족의 정확한 구분은 바로 두 개 국가의 관계에 기초하며 이는 양안 관계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표3> 종족정체성의 변천 하에서 양안의 가능한 분열과 통합

	하나의 국가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민족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제병합	대만공화국 (하나의 대만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민족	중국(일국양제)	중화민국 (하나의 중국에 두 개의 국가)

참고 : 施正鋒 2001a, 174.

정치 엘리트들은 종족정체성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상대세력에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고(Smith 1991, 20), 종족이 민족국가 형성의 핵심이라고 호소한다(Smith 1991,

39).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대만의 두 장 총통, 리덩훤이, 천수이볜 마잉주이 시기를 걸치면서 국가지위에 대한 정체성 및 국가 미래발전 목표를 달리 설정하면서 전력을 다해 종족정체성 전환을 추진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대만의 종족정체성은 부단히 변화했으며, 집권자들은 특수한 정치적 이익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이익에 들어맞게 대만의 종족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종족정체성 전환의 조작 및 결과는 양안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¹³⁾

실제로 대만 내부의 종족정체성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종족신분’은 ‘종족의식’을 결정하며, 이렇게 형성된 종족의식은 정치태도 및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립하게 된다(吳乃德 1993, 41). 이러한 인과관계를 양안 관계 문제로 확대했을 때, 대만인은 대만의식의 촉진 작용 때문에 대만인과 중국인은 두 개의 다른 민족이라 확신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특정한 정치태도 및 행위를 보이고 궁극적으로 양안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대만은 토착화와 대만화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및 정치사회화 과정 중 대만인들의 국가정체성은 전통의 중국 정체성에서 대만 섬 및 그 주변 도서지역에 한정된 정체성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본토는 양안 관계를 국내문제로 국한하고 있지만, 대만은 양안 관계를 국내문제에서 ‘국제사무’(國際事務)로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양안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대만 내부의 국가정체성 전환은 대만 지도자가 양안 관계를 ‘국내관계’ 혹은 ‘국제관계’로 설정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만 정치지도자가 양안 관계를 국내관계 혹은 국제관계인가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양안 관계의 전체 구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만인의 정치적 정체성 인식은 지도부의 대 중국전략 및 정책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만인의 여론이 총통 선거나 기타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만 집권층은 대 대륙 전략 및 양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만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반영하였다(김애경 2006, 126). 결론적으로 민족정체성에 기반을 둔 통일 대 독립 문제가 정당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 대만의 양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2. 대만 정체성의 한계

1)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영향

1988년부터 1999년 양안 관계는 정치 및 경제의 이원적 교류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하지만, 리덩훤이 집권 중·후반기에 들어서 양안 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시기 리덩훤이는

13) 대만 정치지도자 자신의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지도자 및 그가 속한 정당도 모두 대만 내부의 국가정체성을 전환하는 선거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대만인들의 선거성향에 따라 대만정체성은 전환하며, 이는 양안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대만주체의식’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여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힘을 썼다(김애경 2006, 120-121). 리덩훤이 총통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강화되자 ‘대만의 지위’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국민당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으며, 리덩훤이와 천수이볜 재임 기간에 대만민족주의가 증가함으로써 강한 독립성향의 두 총통은 정체성 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김범석 2005, 73-74). 리덩훤이 총통은 국민당의 대만화를 주장하고 양안은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양국론(兩國論)을 제시하면서 양안 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더욱이 50년에 걸친 국민당과 공산당의 양자 관계를 종식한 민진당 천수이볜 정부의 출범으로 대만 민진당 시대의 양안 관계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안의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의 확대와 심화는 중국의 정치, 경제와 사회에 대한 대만인들의 기존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양안의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른 상호의존 심화는 대만의 분리 독립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문홍호 2007a, 211). 이렇게 양안의 교류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양안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요구가 중국과 대만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문홍호 2007a, 195-196).

정경분리(政經分離)를 통해서 이루어진 양안 간의 경제교류와 인적교류는 양안 주민들의 상호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¹⁴⁾ 이러한 인식변화는 점차 쌍방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상대방을 극도로 자극하는 통일이나 독립 정책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안의 경제교류 비중의 증가는 양안의 정치 및 군사적 대립의 수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양안의 경제교류 확대와 주민들의 인식변화는 대만 사회 전반에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독립 열망을 억제하고 “통일도 안 하고 독립도 안 한다.”(不統不獨)의 평화적 현상유지에 충실한 여론¹⁵⁾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문홍호 2007a, 196-197). 앞으로 양안 관계는 ‘통일과 독립에 관한 치열한 논쟁’과 ‘경제 및 인적 교류의 협력관계’ 구조를 형성하면서 현상유지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2) 중국정부의 대만 정체성 발전 억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중국내전에서 시작된 양안 갈등은 1980년대까지 지속하였으며, 양안의 교착상태 속에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모두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들의 갈등은 주로 “누가 중국을 통치할 것인가?”와 중국의 정치이념에 관한 것이었다(김범석 2005, 71;

14)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行政院大陸委員會)가 학술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한 “대만 정부의 양안 정책이 상당히 중국본토에 치우쳐져서 대만의 이익에 손상을 주고 있는가?”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4%에서 46%가 맞다고 대답했고,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40%에서 54%에 달했다. 또한 2008년 5월 20일 마잉주이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안간의 교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대만인들이 대만정부의 대륙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憂慮)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魏艾 2009, 20).

15) 2008년 12월 19일부터 21일 사이 대륙위원회가 공포한 대만인의 ‘통일과 독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상황을 유지하자”라는 민중은 절대다수인 91.8%를 차지하여 과거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劉文斌, 2009, 45-46).

Muthiah Alagappa 2001, 30). 그러나 1990년대부터 양안의 갈등구조는 대만의 '정체성'과 '지위'에 관한 문제 즉, 대만이 중국 일부분인가와 중국본토와 통일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대두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대만 정체성의 증가와 독립요구는 중국과의 갈등을 확대하였다. 양안 관계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누가 중국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에서 대만의 정체성과 국제적 지위 및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전환되었다(김범석 2005, 71).

특히 1996년 양안 관계는 저조기에 빠져들었지만, 중국정부는 경제무역 및 문화 영역에서 끊임없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는 양안의 이익추구라는 이유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만과 중국본토 간의 관계가 악화함으로써 대만 내부에 더욱 심각한 '문화정체성' 혹은 '종족정체성'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1995년 전후로 한 양안 관계는 정치, 군사 및 외교 측면의 관계악화 및 긴장상태에도 양안의 경제무역 및 문화교류는 중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오히려 더욱 활발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정부가 경제무역 및 문화적 교류관계를 이용하여 정치, 군사 및 외교적 악화상태를 보완하려는 전략을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양안의 통일보다는 대만의 독립 역제에 주력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중국과 구별되는 대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실체를 인식하고 '대만문제의 국제화'를 조성하는 국제여론 형성을 가장 우려한다. 그 때문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대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흥호 2007a, 209-210). 중국정부는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V. 결 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양안 관계는 '정치·군사적 대립'과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 및 인적 교류'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부조화 속의 조화, 불균형 속의 균형을 이루며 소위 '호보호리'(五補互利)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모색해 왔다(문흥호 2007b, 24). 양안 간 정치적 갈등은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만의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의 대립성에서 나온다 할 수 있다.

1949년 대만으로 천도한 이후 국민당정부 지도자들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대만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초기 장제스와 장징궈 집권 시기에는 '하나의 중국'과 대만인들의 '중국화'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며 '반공복국'(反共復國)의 통일정책을 표명하였고, 리덩훤이 등장 이후에는 '중국화'가 아닌 '신 대만인'이라는 대만의 토착화를 통해 대만인의 주인의식을 강화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해 왔으며, 천수이볜은 이러한 국가정체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리덩훤이 이후 대만의 국가정체성 강화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과의 국제법상 대등한 지위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국가정체성 확립정책은 대만의 '탈중국화'를 지향하게 하였고 이는 과거 중국 수복을 지향하였던 통일정책 대신에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하였다. 대만의 독립지향정책은 양안 간 정치적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대만 내부의 국가정

체성 전환은 대만 지도자가 양안 관계를 국내관계 혹은 국제관계로 설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양안 관계의 전체 구도를 결정하기도 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기에는 무력을 통한 대만 수복이 기본적인 통일정책이었으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평화통일 노선으로 전환하였으며 동시에 무력통일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만문제는 영토 주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문제와 연관된다. 중국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대만문제가 내정문제라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 등 타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뜻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특히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은 양안 간 정치적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덩샤오핑 이후 현재 중국의 통일 원칙과 기본정책은 불변이었지만 책략적 운용 면에서는 탄력성을 보여 왔으며 시기적 상황에 따라 절충점을 모색해 왔다. 중국은 국내의 환경변화에 따라 유리한 양안 관계의 국면을 장악하고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책략적으로 운영해 왔다(최관장 2003, 5).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과 평화적 답관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지도자들은 대만문제 해결을 정치적 정당성과 연결해 양안 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양안 관계는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양안 정책은 대만과의 급속한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안 관계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중국과 대만 내부의 변화는 물론 미국의 양안 정책도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대만의 경우 국가정체성의 강화와 독립정책의 강화 때문에 중국과의 정치, 안보관계가 악화하여 왔음에도 사회, 경제교류가 지속하고 발전하여 올 수 있었던 요인은 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980년대 대만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대만 자본가들과 여론의 변화,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의 대륙정책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¹⁶⁾ 대만의 지도자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정체성과 독립정책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과의 교류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부의 변화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양안 간 교류증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양안 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적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우월한 국제적 지위와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만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무역관계 확대를 위한 주도권을 취함으로써 대만 기업인과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었다. 중국의 지도부는 양안 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대만의 자본을 중국으로 유입하고 양안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시킴으로써 대만의 독립정책을 견제하고(이희욱 1998, 201), 동시에 양안 간 관계개선으로 대만 내의 ‘문화정체성’과 ‘종족정체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대만의 양안 정책에는 미국의 양안 정책도 큰 영향을 주어왔다. 대만의 입장에서 미국, 중국, 대만 삼각관계의 변화와 양안 간 관계의 변화는 대만의 생사존망이 걸린 대사이자. 대만의 입장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실무적 외교를 추진해 왔다(최관장 2003, 12). 대만의 독립을 위한 행보가 지속된다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

16) 중국은 대만인들에게 더없이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 언어, 문화 등이 같은데다 생산 코스트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독립정책을 견제하는 양안 정책을 표방하였고 중국과 함께 대만 독립 저지에 공동전선을 구축해 왔다. 미국이 대만독립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협조 요청 때문이라기보다 대만해협의 군사충돌이 미국의 국익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 때문이었다(신상진 2007, 81). 이와 같은 중국의 의지와 미국의 양안 정책으로 양안 간 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2009년 대만의 마잉주이체제 등장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 및 ‘92공식’에 대한 승인을 통해 침체된 대만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륙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마잉주이 등장 이후에도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독립정책은 기본적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통일정책은 양안 간 정치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양안 지도부의 양안 정책 변화, 대만 내 여론, 미국의 양안 정책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양안 간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안 간 교류의 증대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지도부의 전략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참 고 목 록

- 강준영(2008). “兩岸關係 신질서 구축의 본질과 전망.” 『中國研究』. 제44권.
- 김범석(2005). “대만민주화와 양안관계의 변화: 민주 평화론을 적용하여.” 『國際政治論叢』. 제45집, 2호.
- 김애경(2006). “중국의 부상과 대만의 대응.”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4호.
- 김원곤(2005). “臺灣社會의 臺灣意識 擴散과 그 影響.” 『中國研究』. 제36권.
- 김태호(2003). “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 김홍규(2005).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양안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6월 8일.
- 문홍호(2000). “양안관계 연구.”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나남출판사.
- 문홍호(2006).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양안관계.” 『정세와 정책』. 4월호.
- 문홍호(2007a).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 『東亞研究』. 제53집.
- 문홍호(2007b).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폴리테이아.
- 신상진(2006).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中蘇研究』. 제30권, 제1호.
- 신상진(2007).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국가전략』. 제13권, 3호.
- 신종호(2008). “마잉주 정권 출범이후 양안관계 발전현황과 전망.” 『정세와 정책』. 2008년 8월호.
- 오승렬(2003). “중·대만 관계의 구조적 특징 연구.” 『中國研究』. 제30권.

- 王生(2005).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논문.
- 외교안보연구원(1993). 『중국의 통일백서 발표와 양안관계』. 1993.11.17.
- 이희욱(1998). “중국-대만관계: 정치적 차이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동시 발전.” 『통일시론』. 통권1호.
- 조명철(2007). “중국-대만 양안간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국토』. 통권 311호.
- 조준현(2004). “중국-대만 간 양안교류의 동향과 WTO 가입 이후의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
- 최강호(2008). “천수이벤(陳水扁) 정부와 마잉저우(馬英九) 정부의 대륙정책 고찰.” 『中國學論叢』. 제26집.
- 최관장(2003). “중국 통일 이데올로기와 兩岸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제24집.
- 최명해(2009). “마잉주 정권 출범 1년의 양안관계 평가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9년 6월 17일.
- 한중수, 주유진(2005).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과 양안간 교류협력.” 『역사와 사회』. 통권 제35집.
- 허홍호(2008).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변화와 전망.” 『東亞研究』. 제 54집.
- 葛永光(1993). 『文化多元主義與國家整合: 兼論中國認同的形成與挑戰』. 正中출판사.
- 郭震遠(2005). “第二期布什政府對臺灣政策評析.” 『中國評論』. 5월호.
- 江澤民(1995). “位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奮鬥.” 『人民日報』. 1995. 1. 31.
- 李登輝, 中嶋嶺雄 (駱文森, 楊明珠 역)(2000). 『亞洲의智略』. 遠流출판사.
- 林佳龍(2001). “台灣民主化與國族形成.” 林佳龍 편. 『民族主義與兩岸關係: 哈佛大學東西方學者的對話』. 新自然主義.
- 劉文斌(2009). “中共政治發展與兩岸關係.” 『展望與探索』. 제7권, 제3기.
- 盧建榮(1999). 『分裂的國族認同(1975~1997)』. 麥田출판사.
- 彭瑞金(1993). “台灣民族運動與台灣民衆文學.” 李鴻禧 편. 『國家認同與學術研討會論文集』. 財團法人現代學術研究基金會.
- 施正鋒(2001a). “台灣人的國家認同.” 『臺灣歷史學會編, 國家認同論文集』. 稻香출판사.
- 施正鋒(2001b). “特殊的國與國關係之評述.” 台灣主權論述資料選編編輯小組. 『台灣主權論述資料選編(上)』. 國使館.
- 石之瑜(1993). 『當代台灣的中國意識』. 正中출판사.
- 石之瑜(2003). “蔣經國的台灣化 非去中國化.” 『聯合報』. 2003. 1. 13.
- 王甫昌(1998). “台灣民主政治與族群間的衝突.” 游盈隆 편. 『民主鞏固或崩潰: 台灣二十一世紀的挑戰』. 月旦출판사.
- 魏艾(2009). “第三次江陳會談及其政經意涵.” 『展望與探索』. 제7권, 제5기.
- 吳乃德(1993). “省籍意識, 政治支持和國家認同.” 張茂桂 등 저. 『族群關係與國家認同』. 業強출

판사.

- 徐火炎(1996). “台灣選民的國家認同與黨派投票行爲：一九九一年至一九九三年間的時政研究結果.” 徐火炎 등 저. 『台灣族群政治專題』. 月旦출판사.
- 游盈隆(1996). “族群認同的政治心理分析.” 徐火炎 등 저. 『台灣族群政治專題』. 月旦출판사.
- 張茂桂(1998). “談‘身分認同政治’的幾個問題.” 游盈隆 편. 『民主鞏固或崩潰：台灣二十一世紀的挑戰』. 月旦출판사.
- 朱松栢(2001). “兩岸交流 與 兩韓關係之研究.” 『問題與研究』. 제40권, 6기.
- _____(2003). “美國不支持“台獨”的政策表述更明確.” 『人民日報』. 2003년 10월 24일.
- Chris Harman (白曉紅역)(2001). 『民族問題的重反』. 前衛출판사.
- David Potter (王謙등역)(2000). 『民主化的歷程』. 韋伯출판사.
- Ted Pobert Gurr & Barbara Harff (鄭又平等역)(2002). 『國際政治中的族群衝突』. 韋伯출판사.
- Alan M. Wachman(1994). *Taiwan - National Identity and Democratization*. N.Y.: An East Gate Book.
- Anthony D. Smith(1991). *National Identity*. Las Vegas: University of Nevada.
- _____(1986). *Beijing Review*. No. 11.
- Julian Baum(1995). “Pressure Cook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24, 1995).
- Muthiah Alagappa ed(2001). *Taiwan's Presidential Politics: Democratization and Cross-Strait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monk, N.Y.: M.E. Sharpe.
- Raymond Grew(1986).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Peter Boerner (ed.). *Concepts of Nationalism: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Germany: Auflage.
- Thomas B. Gold(1994). “Civil Society and Taiwan's Quest for Identity.” Stevan Harrell & Huang Chun-chieh (ed.). *Cultural Change in Postwar Taiwan*. Colorado: Westview Press.
- Yu-Shan Wu(2004). “Taiwanese Nationalism and Its Implications.” *Asian Survey*. 44-4.
- 戴正德. “教育本土化與社會發展的關係.” <http://www.twsociety.org.tw/09c005.htm>
- 宋國誠. “河洛霸權與本土沙文主義.”
<http://www.cdn.com.tw/daily/2003/09/21/text/920921i4.htm>.

Abstract

Taiwan's National Identity and China-Taiwan Relations

Wonbong Lee* · Kyooseb Lim**

China-Taiwan relations have been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China-Taiwan policy established by China, Taiwan, and United States. Taiwan's China-Taiwan policy has supported not only achieving political independence but also maintaining economic exchange. Although economic policy is quite similar with Taiwan's, China has kept Taiwan's independence under the 'One China' policy. And U.S pushed ahead with a policy which put importance on stability and peace in China-Taiwan relations for their own national profits. As a result, exchange of people and goods has increased consistently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also the political relationship started to improve since the inauguration of Mayingjiu(Ma Ying-jeou) government in Taiwan. In this thesis, we will do research on the change of Taiwan's national identity and how that has affected China-Taiwan relations using Taiwan's internal identity as a major factor about it. In actual fact, achieving reunification and independence matters are based on Taiwan's national identity and they affected Taiwan's policy toward China because they can become important issues distinguishing different political parties. Consequently, it has led to a direct cause of the change on Taiwan-China relations.

■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

* Dept. of Chinese Studies, Kyung Hee Cyber University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